

세계 모바일 이미징 시장의 동향

휴대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시장의 품질 조사에 의하면 '모바일 이미징'의 성공 요소로는 인화 품질과 출력 솔루션이 중요하다고 한다. 극동에서 행해진 경험적인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휴대폰 사용자들은 사진을 찍는데는 적극적이지만 이를 인화하는데는 그렇지 않다. 예컨대 일본에서는 평균적인 휴대폰 사용자가 하루에 한 장 정도의 사진을 찍고, 그렇게 촬영한 사진 중에 연 평균 6% 정도만 출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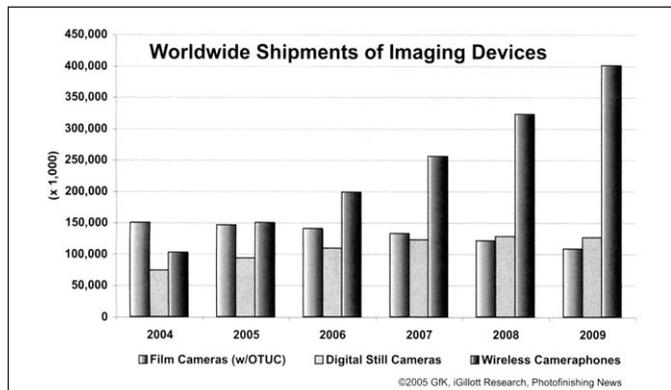
출처 : Sunday February 20, 2005 PMA Daily

2003년에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카메라폰의 수가 디지털 스틸 카메라(DSC)의 판매 대수를 능가하였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전통적인 필름의 판매량이 세계적으로 급속한 속도로 감소했다는 사실을 감안하였을 때 판매되고 있는 카메라폰의 수가 재사용이 가능한 카메라의 대수를 훨씬 능가한다고 믿을 수 있다.

그러나 <표 1>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제대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일회용 카메라의 판매량과, 재사용이 가능한 카메라와, 일회용 카메라의 매출량의 합계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단, 2004년도에 2백만대 가량 팔린 즉석 필름 카메라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 판매량의 합계에 따르면 올해까지는 카메라폰의 판매량에 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2008년까지는 DSC의 판매량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 더 현실적인 비교 방법은 1년에 한 번 이상 사용되는 기기로 정의되는 개인 기기의 세계적 구성비를 비교해 보는 것이다. 이 비교는 <표 2>에서 볼 수 있다. 디지털 사진 기기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세한 필름 기반 사진기기 구성비가 존재하고 있다. 이 필름 기반 사진 기기의 구성비는 매년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2009년까지는 카메라폰이나 DSC의 구성비보다는 클

표 1.



것이다. 카메라폰에 관한 정보는 Photolining News가 iGilliot 연구소와 합동하여 발행한 '무선 카메라폰이 세계 포토이미징 산업에 미칠 영향, 2003-2008' 에서 발췌한 것이다.

카메라폰의 전체 수보다 조금 깊이 살펴보자. <표 3>은 전세계의 카메라폰 판매량을 카메라 해상도 별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서의 카메라폰 판매량의 상승세가 놀랍기는 하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서부 유럽 지역 시장에는 미치지 못 한다. 따라서 시장에 관한 유럽식 관점을 가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올해 초 열린 Photofinishing & Minilab 기술에 관한 11번째 국제 심포지움에서 독일 T-Mobile사의 개인 고객 사업 담당자인 Gerald Blessing의 산업 예측에 의하면 서유럽의 디지털 정지화상 카메라 시장의 성장률은 2003년의 14%에서 2004년에는 30% 정도로 상승할 것이라 말했다. 카메라폰 매출의 성장폭은 더욱 클 것이며, 따라서 2004년 말이면 디지털 정지화상 카메라보다는 카메라폰이 더 많이 사용될 것이다.

카메라폰의 성장은 독일 T-Mobile사의 매출에서도 나타난다. 'Postpaid' (subscription) 부문에서는 판매된 단말기의 80% 이

상이 내장된 카메라가 장치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prepaid' 부문에서는 카메라폰의 비율이 적지만(20% 정도) 이 수치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초에 T-Mobile 사는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prepaid 카메라폰을 한 종류 밖에는 보유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는 prepaid 고객들은 4 종류의 제품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004년 말까지는 모든 대형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독일 내에서 백만 화소급 제품들을 제공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판매된 단말기 중 백만 화소 이상의 해상도를 제공하는 휴대폰의 비율은 2004년에는 2003년의 3%에 비하여 크게 증가된 12%정도에 이를 것이다.

이와 동시에 휴대폰 디스플레이도 더욱 향상될 것이다.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들이 어느 정도의 품질로 단말기 상에 표시될 수 있는지에 따라 고객들은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의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결정될 것이므로 이는 매우 중요하다. 고급 휴대 전화들은 이제 65,00색의 표시가 가능하다.

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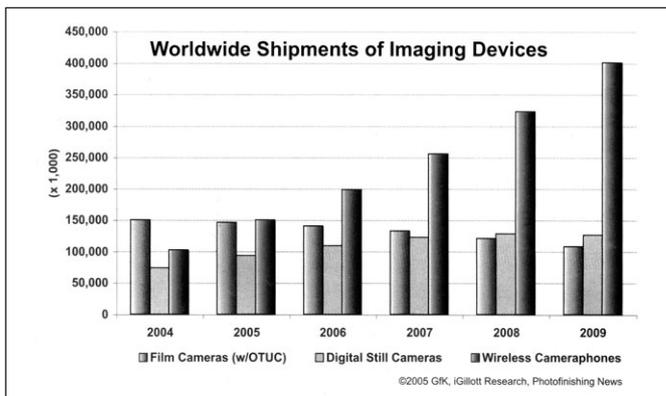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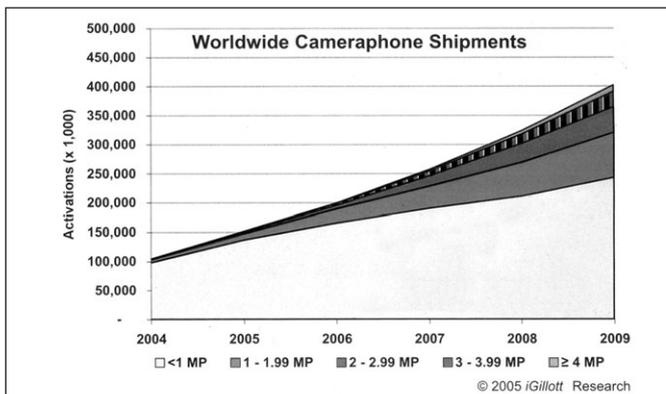


표 3.



카메라폰과 DSC의 병용

T-Mobile사는 향후 소비자들이 디지털 정지화상 카메라와 카메라폰을 병용할 것이며, 사용 목적과 여러 가지 사용 상황에 따라 어느 기기를 사용할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더욱 좋은 기능과 품질을 제공하는 디지털 카메라는 축하할 날이나 휴가 등의 중요한 날이나 계획된 사진 등을 찍는데 사용될 것이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저장, 인화 그리고 친구들에게 사진을 배포하는 것이다. 카메라폰은 다르다. 이 기기는 계속 함께하는 친구이고, 항상 몸에 지니고 있어 사용자가 계획되지 않은 사진도 언제나 찍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한 돌발적인 상황들은 보통 친구들과의

외출과 같은 기분 좋은 상황들이지만, 교통 사고와 같은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간을 포착하고 계획되지 않은 순간들을 교환하는 것이다. 사진의 품질은 우연성이나 놀라움 등의 요소보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재미다. 그 수가 더 적기는 하지만 사진이 인화되기도 한다. 사진들은 일시적으로나마 저장되고 다른 매체로 전송되는 경우가 흔한데, 다른 매체로는 주로 PC가 사용된다.

그러나 Blessing씨의 의견으로는 시장의 경제선과 큰 관련이 있는 이러한 용도의 차이는 카메라폰의 해상도가 2백, 3백 그리고 4백만 화소에 다르면서 변할 것이라고 한다.

“그 시점부터는 카메라폰들이 이 경쟁에서 이길 것이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바로 편리함이다. T-Mobile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시장 조사에 의하면 카메라폰의 주 용도는 우연한 사진들을 찍고 저장하여 이 사진들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것이라고 한다(표 4 참조).

기술 발전과 함께 다양해져 가는 모바일 이미징 서비스

Blessing씨가 T-Mobile사의 주요 모바일 이미징 서비스를 소개하였다.

사용자끼리의 MMS(Multimedia Messaging Service) 메시지 교환.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휴대폰 사이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서비스인 SMS(Short Messaging Service)가 음성성이 아닌 서비스 중에 가장 성공적인 서비스 중 하나가 되었고, Blessing씨는 이 성공이 MMS에서도 계속될 것이라 예상했다(동화상/동영상, 소리와 문자). 이 서비스는 다음의 사항들을 위하여 필요한 전제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표 4. 카메라폰의 사용용도

휴대폰을 사용하여 사진을 찍는 목적	2001	2002
“순간”을 저장하려고	68%	78%
사진의 전송하기 위하여	69%	73%
친구들과 “순간”을 공유하기 위하여	69%	69%
단순한 재미로	61%	62%
PC로 전송하기 위하여	35%	32%
선물용	17%	18%

- a) 명백히 보이는 수익에 대한 약속
- b) 간단한 조작과 쉬운 사용법
- c) MMS(30kb) 하나 당 39센트(\$0.50)라는 우편엽서보다도 저렴한 가격

휴대용 단말기에서 휴대용 단말기로 MMS를 보내는 것 외에 MMS 파일을 휴대용 단말기에서 아무 e-mail 주소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즉 휴대용 단말기에서 인터넷(Web)로 MMS를 보낼 수 있다. 이 MMS 서비스는 현재 300kb까지 MMS를 전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메가픽셀 카메라로 촬영된 고품질의 사진도 전송되고 취급될 수 있다.

MMS 서비스는 단순히 사진을 전송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10~15초 짜리 동영상 클립도 전송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동영상 메시지)를 이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유일한 전제조건은 동영상 플레이어를 탑재한 단말기이며(적어도 유럽에서는), 이러한 전제조건을 만족 시키는 중간급의 휴대용 단말기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T-Mobile 고객들은 M-Card 서비스를 사용하여 문자와 소리와 함께 사진을 수신인의 단축된 4자리 전화번호로 전송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수신인은 우편으로 엽서를 받게 된다. 이 부가 서비스는 독일에서 \$1.99(\$1.70)에 제공되고 있다. 엽서 서비스는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도 제공되고, 이 경우에 엽서는 보통 MMS가 전송되고 48시간 이내에 독일의 수취인에게 도착한다.

MMS 앨범은 사진이나 동영상 클립을 저장, 편집, 개인화하고 출력/다운로드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T-Mobile사는 코닥사와 합작하여 매력적인 가격에 포토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들은 WAP을 통하여 그들의 사진을 개인 코닥 사진 앨범에 업로드하고 아무 사진관으로나 사진을 배달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사진을 터치스크린, 커피잔, 마우스패드 또는 퍼즐에 인쇄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다.